

4주차

근대 여성 지식인의 문학(2), 박화성

장영은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박화성의 성장 과정

- 박화성의 유년 시절
- 문학 수업과 등단
- 일본 유학 시절

02. 박화성의 도전과 좌절

- 여성 작가의 역사소설 《백화》
- 고단했던 결혼과 이혼
- 재혼 이후 부진했던 작품 활동

03. 박화성의 현실 인식

- 한국전쟁과 여성
- 4·19와 1960년대 문학
- 어머니 박화성

2차시

박화성의 도전과 좌절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《백화》를 중심으로 박화성 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여성 작가의 역사소설 《백화》
- 고단했던 결혼과 이혼
- 재혼 이후 부진했던 작품 활동

여성 작가의 역사소설 《백화》

〈하수도 공사〉 (1932)

- 소설가로서 재출발한 작품

장편소설 《백화》

- 동아일보에 1932년 6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
180회에 걸쳐 연재
-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
- 간신배들에 의해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고
기생이 된 딸 백화의 이야기

박화성, 「연재소설예고 장편소설 백화」

- “우리 인간 모든 생활에 부딪히는 시대의 제도, 사상, 습관 등은 그 가부, 선악 여하를 물론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천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역사이다.
우리들의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실에 암흑할 것이며 현실에 암흑하고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력이 미약할 것이다.

박화성, 「연재소설예고 장편소설 백화」

- 이러한 의미에서 문예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와 인간의 흑막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과거를 현실에 제공하고 현재를 미래에 참고하게 함이 문예가 인간 실생활의 본질을 다한 예술이라 할 것이다. 이에 나는 우리의 전신인 고려 말엽의 시대상을 대중의 눈 앞에 제공하고자 한다. 고려시대의 봉건적 사상은 중국 대륙성을 흡수하여 그 시대 국민의 전 정신을 지배하였던 것이다.

박화성, 「연재소설예고 장편소설 백화」

- 봉건적 제도는 오직 대중의 몽매무지한 데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.

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흑막을 공구하여 문예적 방법에 의하는 전제로 자본주의 사상의 전신인 우리 사회의 봉건적 폭권 만능인 시대 상면을 심히 미약하나마 대중 앞에 제공하려고 한다.”

《동아일보》, 1932.6.3.

장편소설 《백화》

- 1930년대 문학 시장에서 역사소설에 대한 대중적 호응
-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복수하며 현실을 당당히 돌파하는 여성 주인공
- 여성 작가의 취약한 사회적 위상 속에서 분투했던 박화성
- 작가로서 박화성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인 성공작

여성 작가로서 살아가는 어려움

- “소설을 쓰기 위해 내 생활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알맞지 않은 노릇을 하고 있다.

여섯 살과 네 살 난 남매를 유치원에 보내어 과분한 학비와 비용을 들인 것이다.”

여성 작가로서 살아가는 어려움

- “아이들과 억지로 정을 떼 가며 호랑이 노릇을 해가며 어머니에게는 불효를 해가며 도둑놈 도둑질할 구멍 엿보듯이 밤낮으로 조용한 시간만 가져볼 궁리나 머리에 가득하게 가지고 집안일은 밤을 새워 해가면서 게다가 구설깨나 들으면서도 이 붓대를 놓지 못하는 것을 무슨 천형으로 생각하였다.”

고단했던 결혼과 이혼

여성 작가의 결혼 생활

- “여성 작가로서 딱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고통과 번민이 될 것 같지만은
그렇지도 않는 듯합니다.”

‘여성 작가 좌담회’에서 박화성의 발언(《삼천리》 1936.2)

여성 작가의 결혼 생활

- “이런 잡동사니 일에 빠져서 헤매면서도 붓을 들고 제법 창작해 보겠다고 용기를 내는 걸 보면 차라리 한 직업을 가지고 나서서 거기에 열중하면서 가사는 적당한 사람을 얻어 맡기고 육아하거나 대강만 보살피는 것이 훨씬 더 머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 같아요.”

‘여성 작가 좌담회’에서 박화성의 발언(《삼천리》 1936.2)

남편의 이혼 요구

- 남편 김국진의 출옥 후에도 홀로 가장의 역할을 떠맡았던 박화성

- 가정에 무책임했던 남편의 돌연한 이혼 요구

박화성, <눈보라의 운하>

- “난 복역하는 동안 무척 후회했소. 당신과 결혼한 것을 말요.”

박화성, <눈보라의 운하>

- 결혼생활 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배신감
- 김국진과 이혼

이혼 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

- 단편 〈온천장의 봄〉 (1936)
- 단편 〈호박〉 (1937) 등

재혼 후 부진했던 작품 활동

이혼 후 사업가 천독근의 청혼

- 작가로서 쌓아올린 사회적 명성이 사생활과 소문으로
무너지는 상황을 두려워했던 박화성
- 천독근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으로 재혼 결심

1937년 무렵 천독근과 재혼

- 대가족의 맘머느리로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부진해진 작품 활동

재혼 후 작가로서 공백기를 맞게 된 박화성

- “작년까지도 각 신문이나 잡지사에서 소설과 수필 따위를 써달라는 청탁서가 하루에 얼마씩이나 있었는데 워낙 한 군데도 응하지 않은 탓인지 이 해부터는 좀 뜸해졌다.”

박화성, <눈보라의 운하>, 226-227쪽

집필 활동을 반대한 남편 천독근

- “여편네가 건방지게 소설이 다 뭐야”

박화성, <눈보라의 운하>, 302-303쪽

작가로의 복귀

- 1950년대 중 · 후반
 - 작품을 발표하며 작가로 복귀

학습정리

- 《백화》 연재로 작가로서 입지를 다진 박화성
- 여성 작가가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처한 난관들

다음 차시에서는

- 1950년대와 1960년대 박화성의 작품 활동과 현실 인식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